

▶ 전북도립미술관 '호남의 현역작가들' 전

전북·광주·전남 미술가들 작품 '한곳에'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석원)과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전북과 광주·전남으로 기획했던 지역미술의 경계를 허물고, '호남 미술'의 범위로 외연을 확장한다.

이에 양 미술관은 지난해 12월 상호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전시·수집·연구·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전문 인력·자료·콘텐츠를 공동 활용해 이 지역의 예술정책성을 창출해 나가기로 약정했다.

이 협약에 따라 양 미술관은 '호남의 현역작가들' 전을 연차적으로 공동 개최한다. 올해는 전북도립미술관이 오는 10일부터 3월 26일까지 전시를 갖는다.

전시는 호남 현대미술의 현재적 실상과 독자성을 구축해 보이면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함을 목표로 기획됐다.

전시에는 양 기관에서 각기 추천된 8명씩의 작가 총 16명이 참여한다.

전북작가는 김성민·김영봉·박성수·서완호·이기립·이주리·조현·홍남기 작가가, 광주·전남 작가로는 김명우·박세희·박정용·송영학·설박·이인성·이조흠·이정기가 나선다.

이들 대부분은 30~40대의 청년작가들로, 오늘의 사회와 예술계를 살피며 작품성과 예술성을 담아내고자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호남의 현역작가들' 전이 이 지역 미술의 현재를 보여주는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한국화·서양화·설치·조각·미디어 작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로 채워지는 이번 전시는 두 지역 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가능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성민 작가는 전직 테슬러 선수를 그린 '임동식의 초상'

10일부터 3월 26일까지... 회화·조각 등 지역미술의 현재 보여주는 작품 선배

초상'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작품에서 사람들의 운동선수에 대한 선입견, 특히 격투기 선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화면에 보이는 초상은 한눈에 보아도 강한 인상을 주는데, 그는 보기와 달리 아주 선하고 배려심도 많으며 수줍음도 잘 탄다. 운동선수나 운동선수 출신들이 강해 보이는 건 그만큼 한 가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훈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표출한다.

이주리 작가는 '살다' 주제로 작품을 연다.

작가는 '인간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세상에 나와 죽는 순간까지 안락을 원하지만 완벽한 안락은 없다'며 과한 욕심과 목욕을 부려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정작 중요한 마음을 잊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홍남기는 작품 '향해'에서 지난 25년간 폐쇄되었던 전주시에 있는 카스테이트프 생산 공장인 '포레스'의 과거 이야기와 그 시기에 겪었던 개인적 경험의 총동 지점을 시각화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다.

'포레스'의 여성 노동자들은 한국의 산업화 및 민주화 과정에서 활발한 노동운동을 벌였는데, 89년부터 90년까지 시작된 파업과 노동운동 이후 음악 산업의 변화 등으로 갑작스런 폐업을 맞이하게 된다.

작가는 반영과 예술함이 공존하는 '포레스' 공장 안



1.김성민 '임동식의 초상'
2.이주리 '살다'
3.홍남기 '향해'



구석구석을 마치 귀신처럼 숨어있는 여러 물건들과 구조를 방치된 형태 그대로 채집하여 그 당시 일했던 노동자의 구조와 함께 새롭게 구성해 낸다.

송영학 작가의 작업은 대상에 대한 관심, 즉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내면정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다.

의인화된 동물들을 모티브로 표현한 작업에는 작가 자신의 삶, 그리고 내적인 심리상태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작가는 동양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12지 방위신의 형상을 차용해 의인화함으로써 해석적인 효과와 정서적 교감에 따른 작품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전북도립미술관 관장은 "호남은 예향으로서 조선시대부터 '전라도' 지역으로 통칭되며 하나의 문화권으로 그 맥을 이어왔고, 근대 이후 지역적 차별을 감내해 오면서 독자적 예술적 영역을 구축해왔다"면서 "이 전시를 계기로 전북과 광주권은 또 하나의 '전라도' 개념으로 외연을 넓힘은 물론 현대미술의 지평을 변형시켜 나갈 소통의 기회로 삼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전라도가 여전히 현대 예술가들이 주목해 봐야 할 영감의 원천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부문별 지원자 모집

스크리닝 매니저·영사 스태프·자막가·번역가 등 3월까지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충직)는 스크리닝 매니저·영사 스태프 및 자막가·번역가를 모집한다.

각 부문별 업무내용은, 스크리닝 매니저는 상영관 내부에서 상영 진행 및 상영 전 영사 및 자막 테스트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상영자 스크리닝을 확인한다. 영사 스태프는 영사실에서 상영작 영사 진행 등의 업무를 맡고 영사 사고에 대처한다. 별도의 업무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경험이 없더라도 누구나 지원 및 근무가 가능하다.

자막가는 상영작 대사의 타임 코드를 입력하는 작업인 스포팅과 자막을 영사하는 오퍼레이팅 업무를 담당한다. 기본적인 어학 능력을 갖추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자막 프

로그램(큐타이틀) 사용 가능자 혹은 오퍼레이팅 경력자를 우대한다. 번역가는 상영작에 대한 영어(영한·한영)와 프랑스어 번역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해당 언어 번역이 가능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며, 영화제 상영작 번역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우대한다.

스크리닝 매니저와 영사 스태프는 6일부터 3월 3일까지 모집하며, 3월 13일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한다. 자막가와 번역가는 6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하며, 자막가는 28일에, 번역가는 3월 10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지원방법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고객센터 063-288-5433.

/정해은 기자

자연물로 염원하는 마을의 안녕

10일 부안 채석강·적벽강서 죽막동 수상단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마을의 큰 나무나 숲 등의 자연물을 신성하게 여기고 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매년 마을과 주민들의 평안과 번영을 비는 풍습이 전해 내려왔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그 명맥이 점차 단절됨에 따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오랜 세월 지역주민들과 함께 삶을 영위해 온 천연기념물과 명승에 얽힌 다양한 민속행사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3년부터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대상으로 한 당산제·풍어제·용신제 등을 지원해 마을 교유의 민속신앙을 계승하고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지역민들의 자연유산 보호의식을 높

이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10일 부안군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명승 제13호)에서는 죽막동 수상단체가 열린다. 해마다 음력 정월 14일 죽막동 마을에서는 과실과 술·포 등의 제물을 차려놓고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당제와 용왕제 등을 지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민속행사의 발굴·지원이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행사의 명맥을 잇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자연유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체험·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속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통문화 계승·청소년 인성 함양

국립민속국악원, 지리산 유스캠프와 협약 체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과 지리산유스캠프(원장 이종범)는 전통문화 계승과 국악 진흥 발전 및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위해 업무협약을 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국립민속국악원은 남원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공연사업을, 지리산 유스캠프는 활동프로그램과 시설 및 강사 제공 지원을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박호성 국립민속국악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전통문화계승·진흥·발전·교육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2월 7일>



▷쥐띠

48년생: 욕심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니 작은 것에 만족하라.
60년생: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다.
72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니 말을 조심하라.
84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운.



▷소띠

49년생: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운이니 섭생에 주의하고 컨디션에 신경 써라.
61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
73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긴다.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박함이 따른다.



▷호랑이띠

50년생: 서로 겹으로는 웃으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으니 속을 노출하지 마라.
6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가 생기다.
74년생: 주변의 상황이 어지러워도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86년생: 어려움이 따른다면 뒷사람의 조언을 구하라.



▷토끼띠

51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므로 스트레스에 주의하라.
63년생: 주변 사람에게 베풀어야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75년생: 경쟁자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이다.
87년생: 타인의 일에 나서지 마라. 좋은 일이다. 밝히는 격이니 일이 틀어지면 원망을 듣는다.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자가 나타난다. 진실이 통하지 않으니 때를 기다려라.
64년생: 강하게 나가면 부러지니 적당한 타협할 것.
76년생: 문서를 주고받거나 계약을 성사시키기에 좋은 운이다.
88년생: 용기만으로 행동하기에는 제약이 많이 따른다.



▷뱀띠

53년생: 중요한 약속은 저버려 하는 것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65년생: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운.
77년생: 고민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라.
89년생: 소화가 계통의 질병에 유의해야 하는 운이니 섭생에 주의하라.



▷말띠

54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따르는 운이니 투자나 투기는 삼가고 자중하라.
66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매사 일찍 움직여라.
78년생: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능력 발휘되는 좋은 운이다.
90년생: 정신적으로 무지 않으나 판단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



▷양띠

55년생: 지나친 자기주장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가 예상되니 주의하라.
67년생: 뒷사람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긴다.
79년생: 컨디션이 좋지 못하고 매사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91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 다른 사람과의 화합에도 좋지 못할 듯.



▷원숭이띠

56년생: 외부적인 일들이 생각 외로 잘 해결될 수 있다.
68년생: 동기간과 함께 움직이면 이득을 볼 수 있겠다.
80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니 해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법. 마음의 여유를 찾아라.
92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이니 타인과의 협력은 불가능하다.



▷닭띠

57년생: 식욕이 따르는 운.
69년생: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라.
81년생: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
93년생: 무리한 일은 과감히 포기하라.



▷개띠

46년생: 문서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니 문제가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운이다.
58년생: 처음에는 좋으나 후반에는 틀어질 수도 있다.
70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실수가 따르는 운이다.
82년생: 자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따른다.



▷돼지띠

47년생: 나서지 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돕거나 참견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 운.
59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라.
71년생: 상황이 좋지 못할 때에는 뒤로 물러서서 때를 기다려라.
83년생: 배운 만큼 돌아오니 적극적으로 보충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